

거세지는 '녹색 돌풍' 몰아줄까 나눠줄까

총선 D-6
광주 전략투표 하나

국민의당 "8대0 싸움이" 더민주 "분할 기대" 13대 이후 쏠림현상...2야 대결에 선택 주목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 때마다 '전략적 투표'를 해온 광주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광주 유권자들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전략적 투표에 나서 정국의 흐름을 바꾸곤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5면〉

6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 판세분석을 종합하면 광주 8개 선거구 중 3~4곳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이 같은 돌풍이 선거 막판에 태풍으로 변해 광주 의석을 석권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 측에서는 어느 선거 때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대선 때 정권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광주시민이 극단적 선택보다는 두 야당에 표를 나눠줘 총선 후에도 야당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절묘한 분할'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국민의당 전망이 허언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지난 5일 KBS 광주방송총국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유권자 500~700여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동남 ±3.6%p, 광산 ±3.7%p, 나머지 6개 선거구는 ±4.3%p)에 따르면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앞서는 곳은 광산을 한 곳 뿐이었다.

더욱이 역대 선거에서 광주 유권자는 한 선거구에 투표하는 것 처럼 '몰아주기' 투표를 많이 했다는 점도 국민의당 기대에 힘을 실고 있다. 13대 총선에서는 평화민주당이 5석을, 14대 때에는 민주당이, 15대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이 6석을 각각 석권했다. 16대에는 새천년민주당이 6중에 무소속 한 곳을 제외한 5석을 가져갔다. 또 17대 총선 때는 '정동호남정당'으로 평가받던 새천년민주당이 있었음에도 열린우리당이 7석을 모두 잃었다. 18대 때에도 8석 가운데 무소속 1석을 제외한 7석을 통합민주당이 차지했다. 19대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해 무소속 한 곳을 빼고 8석 중 7석을 가져갔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 분위기는 파도가 돼 광주 총선

전체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역대 선거 대부분은 여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경쟁했던 17대 총선도 '탄핵 역풍'이 전국을 휩쓸었던 때였다.

또 더민주 측은 "호남고립론" '호남자민련론' 등이 광주 유권자 사이에 퍼지면서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싸움이 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총선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광주 유권자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막판까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민주 광주시당 관계자는 "“(反)문재인” 정서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대망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 소속의 한 광주시 의원은 "광주 표심의 본질적 원천은 정권교체지만 광주시민은 현재까지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다만, 여론주도층 사이에서 '반(反)문재인' 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 총선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위안부 소녀 나비가 되어...

6일 광주 원효사가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개최한 천도제 '소녀, 나비가 되어' 행사 모습. 임지형무용단이 '아리, 아리랑 환생' 공연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삼성 미래 자동차 유치' 악수 되나

더민주 광주 유치 공약에 삼성전자 "검토한 바 없다" ... 안철수 "5공식 발상"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고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 승부수로 내세운 '삼성 미래 자동차 유치' 카드가 오히려 논란을 낳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는 더민주 공약 발표 이후 "(자동차) 전장사업 투자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인 '5공(共)식 발상'이라며 국보위 출신의 김종인 더민주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국회 대표실에서 '광주 경제 살리기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승격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확대,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며 "삼성 전장사업 핵심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5년 동안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광주 지역구 후보 8명 전원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

재회견을 갖고 삼성 전장사업 유치 공약과 관련 "미래자동차의 심장 광주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더민주 공약 발표 이후,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자동차) 전장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과 투자 계획을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더민주의 공약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의 팔을 비트는 행위'라며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관계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있는 공장에 떠나는 마당에 투자협약 등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선언만으로 공약이 실현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민주가 광주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무리한 선심성 공

약을 내세웠다든 반응이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데 야당의 공약에 따라갈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 유치 등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5공(共)식 발상 아닌가 싶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대 총선 목표 의석수를 107석을 이루지 못할 경우, 당을 떠나고 비례대표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국 수출 겨냥 ... 전남에 대규모 한우 사육 단지

간척지 등 유향지 활용
차별화 된 고급육 생산

전남도는 전남산 한우의 중국 수출을 겨냥해 한우수출사업단을 구성하고, 간척지 등 유향지를 활용해 대규모 사육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5일 "중국인들의 소고기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수출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한우산업 안정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한우고기 수출기반 조성 협의회를 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국과 대한민국의 검역규정에 따른 중국 소고기 수출에 대비,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사육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남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12월부터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우협회전남도지회, 축산관련 유관기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한우 수출사업단 구성,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 친환경축산 및 HACCP 인증을 획득한 전남산 한우 홍보 강화,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통한 사육기반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우 개량 방향, 수출 준비를 위한 매뉴얼과 홍보전략 개발, 산지 도축·가공 등 종합 기능을 갖춘 축산종합유통센터 조기 건립, 간척지 활용 방안, 생산자 및 유통업체 간 정보 공유 등 대안도 쏟아졌다.

전남도는 한우 적정 사육 수 유지와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해 간척지와 유향지를 활용한 대규모 사육단지 조성, 한우개량사업 확대 등을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생각-나비 ▶3면



파독간호사-광양출신 안영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국민의당
무등산정상을 되찾은 진짜일꾼!
광산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비아 | 임곡 | 수안 | 신가 | 신창 | 첨단1·2 | 하남동

광주광역시 출생 | 문화초 | 동신여중 | 조대여고
전남대사범학과 | 연세대 법학대학원 졸업
사법고시 합격(43회) | 용인, 서초, 수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 위원 | 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광산(을) 국회의원후보
권은희 3
후원회 (후원회장 : 노동일)

"광주 최고의 경제·문화·교육도시 살리는 광산 건설"
01 광산!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척!
02 온 가족이 행복한 문화·관광도시 건설!
03 0세부터 실버세대까지 인물을 키우는 교육도시 광산건설!

후원계좌 예금주_국회의원 권은희 후원회 (농협 351-0734-5265-63 / 광주은행 032-107-089266)
후원안내
· 정치자금법 제 59조에 따라 10만원을 후원하시면 연말 세액공제 정산시 전액 환급됩니다.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한도는 1인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후원은 개인간 가능하며 법인/단체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권은희 후원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2 401호 T.062 961 7030 F.062 961 7040

국민의당 서구(갑) 국회의원후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2016년 1월 퇴임)

키 커라 광주! 기를 서구!!

송기석이 걸은 길
· 전남 고흥 출생
· 육군 제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2년 중퇴(81.03~83.05)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35회 합격
· 미주리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연수(6개월)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재전)
· 광주지방법원 민·형사 부장판사(재전)
· 무등봉사단 단장(재)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후원안내
광주은행 105-107-358667
송기석후원회

정치자금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혜택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소 광주 서구 경열로 18 / 2층 | T.363-0413~4
양동/양3동/농성1,2동/화정1,2동/광천동/유덕동/차평동/상무동/동천동

정정당당! 3 송기석